

#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대성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their Departments of Health College Students and the Types for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Daesung Park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B와 G광역시에 소재한 3년제 학과인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치위생과 대학생을 임의선정하고 편의표집 한 450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5일 까지였고, 배부된 설문지 450부 중 41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4.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은 적성학습이었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진로직업이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보였고, 의존적 유형, 직관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의 영향을 보였다.

**주제어** : 보건계열 대학생,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types and career preparatory behavior of health college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their effects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and presents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career guidance progra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50 college students studying emergency rescue, physical therapy,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and dental hygiene at three-year colleges located in B and G cities. They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The period of the study was from November 12 to 15, 2013. of 45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a total of 418 copi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SPSS 14.0 for Windows was used. As a result,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the largest effect department satisfaction had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was found in aptitude learning followed by 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job. The reasonable type of career decision types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while dependent and instinctive types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Key Words** : Health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typ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13 July 2014, Revised 26 August 2014

Accepted 20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Park Daesung(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Email: emtpds1@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기간은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1], 진로결정은 대학생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2].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인지나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3]. 가고자 하는 직업에서 실시하는 시험과목을 준비하는 일, 그 직업의 취업절차나 기타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 일, 원서 및 이력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등의 직접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지칭한다[4].

학과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한다[5]. 학과만족도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업선택과 장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6].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7], 대학생활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8,9].

진로의사결정유형이란 개인이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이다[2]. Harren[10]은 의사결정유형을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인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합리적 유형의 장점은 의사결정이 합리적, 심리적 독립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잘못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며, 단점은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직관적 유형의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며, 단점은 잘못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의존적 유형은 별다른 장점이 없으며, 단점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며, 남의 눈치를 보는 관계로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 가운데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을 진로결정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11], 합리적 유형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11-13],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합리적 유형이 의존적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14].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과만족도와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진로준비행동과 상관관계이며, 또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의료에 취업해야 하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구체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B와 G광역시에 소재한 3년제 학과인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치위생과 대학생을 임의선정하고 편의표집 한 450명으로 하였다.

조사시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4일 동안)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45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32부를 제외한 4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학과만족도 검사도구

학과만족도 검사도구는 An[11]에 의해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적성학습 8문항, 진로직업 6문항, 대인관계 4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1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7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적성학습요인 .85, 진로직업요인 .77, 대인관계 요인은 .6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919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적성학습요인 .853, 진로직업요인 .820, 대인관계 요인은 .810이었다.

### 2.2.2 진로 의사 유형 검사 도구

진로 의사결정 유형 검사 도구는 Harren[10]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 내용 중 Koh[15]가 번안한 의사결정 유형 검사(Inventory of Decision Making Patterns: IDMP)를 An[11]에 의해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합리적 유형 10문항, 직관적 유형 10문항, 의존적 유형 10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의사결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An[11]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74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합리적 유형 .81, 직관적 유형 .81, 의존적 유형 .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954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합리적 유형 .874, 직관적 유형 .887, 의존적 유형 .909이었다.

### 2.2.3 진로준비행동 검사 도구

진로준비행동 검사 도구는 An[11]에 의해 검증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1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An[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923이었다.

### 2.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 scheffe,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 150명(35.9%), 여 268명(64.1%)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177명(42.3%), 2학년 158명(37.8%), 3학년 83명(19.9%)으로 나타났다.

학과는 응급구조과 59명(13.4%), 물리치료과 156명(37.3%), 보건행정과 106명(25.4%), 치위생과 100명(23.9%)으로 나타났고, 성적은 3.00점 미만 178명(42.6%), 3.00-3.49점 130명(31.1%), 3.50점 이상 110명(26.3%)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18

Division		N(%)
Sex	Boys	150(35.9)
	Girls	268(64.1)
Grade	1	177(42.3)
	2	158(37.8)
	3	83(19.9)
Department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59(13.4)
	Physical therapy	156(37.3)
	Health administration	106(25.4)
	Dental hygiene	100(23.9)
Results	3.00score >	178(42.6)
	3.00-3.49score	130(31.1)
	3.50score ≤	110(26.3)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성별에서 학과만족의 적성학습, 진로직업, 대인관계,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진로준비행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학년에서 학과만족의 적성학습, 진로직업은 2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p < .05$ ). scheffe 검증결과, 2학년과 1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는 3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p < .05$ ). scheffe 검증결과, 2학년, 3학년과 1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2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p < .001$ ).

scheffe 검증결과, 2학년, 3학년과 1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은 3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직관적 유형은 3학년과 1학년, 2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존적 유형은 2학년, 3학년과 1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은 3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3학년과 1학년, 2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에서 학과만족도의 적성학습, 진로직업은 치위생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나타났다( $p<.05$ ). scheffe 검증결과, 치위생과와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는 치위생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보건행정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순으로 나타났다( $p<.05$ ). scheffe 검증결과, 치위생과와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치위생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응급구조과, 보건행정과, 물리치료과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치위생과와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관적 유형은 치위생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치위생과와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존적 유형은 치위생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보건행정과,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치위생과와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은 치위생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응급구조과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치위생과와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에서 학과만족도의 적성학습, 진로직업은 3.50점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3.00-3.49점, 3.00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p<.05$ ). scheffe 검증결과, 3.50점 이상과 3.00점 미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는 3.50점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3.00-3.49점, 3.00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3.50점 이상과 3.00점 미만, 3.00-3.49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은 3.50점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3.00-3.49점, 3.00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3.50점 이상과 3.00점 미만, 3.00-3.49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존적 유형은 3.00점 미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3.00-3.49점, 3.50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3.00점 미만과 3.00-3.49점, 3.50점 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은 3.50점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3.00-3.49점, 3.00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scheffe 검증결과, 3.50점 이상과 3.00점 미만, 3.00-3.49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 3.3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 행동간의 상관관계

학과만족도의 적성학습은 진로직업( $r=.743, p<.001$ ), 대인관계( $r=.620, p<.001$ ),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 $r=.631, p<.001$ ), 진로준비행동( $r=.545,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직관적 유형( $r=-.581, p<.001$ ), 의존적 유형( $r=-.521,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의 진로직업은 대인관계( $r=.732, p<.001$ ),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 $r=.666, p<.001$ ), 진로준비행동( $r=.535,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직관적 유형( $r=-.660, p<.001$ ), 의존적 유형( $r=-.544,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의 대인관계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 $r=.640, p<.001$ ), 진로준비행동( $r=.507, p<.001$ )과

<Table 2> Depart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reer decision types,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Divisio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types			Career preparatory behavior	
	Learning aptitude	Career job	Inter personal	Rational type	Intuitive type	Dependent type		
Sex	Boys	3.39±.602	3.50±.612	3.54±.569	3.68±.612	3.66±.700	3.71±.696	3.67±.682
	Girls	3.11±.474	3.26±.483	3.36±.523	3.40±.545	3.39±.623	3.45±.628	3.35±.675
	t	5.010**	4.465**	3.293*	4.979**	4.006**	3.914**	4.916**
Grade	1 a)	3.11±.528	3.24±.548	3.30±.580	3.30±.565	3.33±.656	3.35±.662	3.22±.655
	2 b)	3.33±.546	3.48±.531	3.50±.511	3.54±.539	3.53±.634	3.53±.611	3.55±.665
	3 c)	3.24±.507	3.33±.518	3.53±.491	3.50±.586	3.75±.650	3.54±.664	3.84±.644
	F	7.389*	8.076**	7.428*	27.915**	12.021**	25.082**	27.044**
	Post hoc-t (scheffe)	a<b	a<b	a<b,c	a<b,c	a,b<c	a<b,c	a,b<c
Department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a)	3.29±.601	3.34±.622	3.31±.594	3.38±.581	3.49±.729	3.43±.591	3.23±.687
	Physical therapy b)	3.17±.562	3.33±.571	3.38±.594	3.36±.595	3.38±.688	3.35±.685	3.35±.704
	Health administration c)	3.16±.513	3.31±.512	3.40±.511	3.37±.515	3.34±.566	3.47±.641	3.33±.601
	Dental hygiene d)	3.31±.478	3.42±.489	3.58±.441	3.91±.450	3.80±.581	3.98±.484	3.94±.565
	F	2.212*	.837*	4.054*	24.845**	11.300**	22.545**	23.795**
	Post hoc-t (scheffe)	a,b,c<d	a,b,c<d	a,b<d	a,b,c<d	a,b,c<d	a,b,c<d	a,b,c<d
Results	3.00score < a)	3.17±.518	3.28±.523	3.29±.520	3.30±.532	3.34±.652	3.93±.585	3.25±.673
	3.00-3.49score b)	3.18±.545	3.33±.548	3.44±.563	3.48±.558	3.44±.610	3.53±.652	3.46±.652
	3.50score ≤ c)	3.34±.550	3.48±.557	3.62±.507	3.85±.543	3.79±.650	3.30±.607	3.83±.641
	F	3.935*	4.708*	13.361**	35.083**	17.538**	35.454**	25.926**
	Post hoc-t (scheffe)	a<c	a<c	a,b<c	a,b<c	a,b<c	b,c<a	a,b<c

\*p<.05, \*\*p<.001, Mean±SD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직관적 유형( $r=-.583, p<.001$ ), 의존적 유형( $r=-.582,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 $r=.864,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직관적 유형( $r=-.851, p<.001$ ), 의존적 유형( $r=-.892,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직관적 유형은 의존적 유형( $r=.658,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 $r=-.570,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의존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 $r=-.671,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 3.4 학과만족도, 진로 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과만족도의 적성학습, 진로학습, 대인관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74.798, p<.001$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352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적성학습( $\beta=.295, p<.001$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 $\beta=.200, p<.05$ ), 진로직업( $\beta=.169, p<.05$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62.982, p<.001$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542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합리적 유형( $\beta=.253$ )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의존적 유형( $\beta=-.960, p<.001$ ), 직관적 유형( $\beta=-.955, p<.001$ )은 순차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types, and career preparatory behavior

Variables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types			Career preparatory behavior	
	A1	A2	A3	B1	B2	B3		
Department satisfaction	A1	1						
	A2	.743**	1					
	A3	.620**	.732**	1				
Career decision types	B1	.631**	.666**	.640**	1			
	B2	-.581**	-.660**	-.583**	-.851**	1		
	B3	-.521**	-.544**	-.582**	-.892**	.658**	1	
Career preparatory behavior		.545**	.535**	.507**	.864**	-.570**	-.671**	1

\*\*p<.001

A1: Learning aptitude, A2: Career job, A3: Interpersonal

B1: Rational type, B2: Intuitive type, B3: Dependent type

<Table 4> The effec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types had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Variables		B	SE	$\beta$	t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Department satisfaction	Learning aptitude	.381	.078	.295	4.912**	.836	1.293
	Career job	.216	.088	.169	2.447*	.729	2.036
	Interpersonal	.256	.075	.200	3.398*	.851	1.215
R <sup>2</sup>					.352		
F					74.798**		
Durbin-Watson					1.827		
Career decision types	Rational type	.301	.064	.253	4.682**	.581	2.370
	Intuitive type	-.184	.043	-.955	-2.942**	.725	1.454
	Dependent type	-.110	.040	-.960	-2.548**	.567	2.998
R <sup>2</sup>					.542		
F					162.982**		
Durbin-Watson					1.991		

\*p<.05, \*\*p<.001

#### 4. 논의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과만족도의 적성 학습, 진로직업, 대인관계의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의료기관 및 산업체에서 남학생을 선호하는 대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착실하게 취업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의존적 유형은 Kim[16]과 Lee[17]의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존적 의사결정이 높다는 결과[11,18]와는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 학과만족의 적성학습, 진로직업은 2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 2학년과 1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많은 전공 수업 및 학과행사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만족일 것이다.

대인관계는 3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 2학년, 3학년과 1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높은 학년일수록 대인관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Kwon[9]과 An[11]의 연구에서 1학년, 2학년이 4학년보다 대인관계가 높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2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 2학년, 3학년과 1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은 3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 직관적 유형은 3학년과 1학년, 2학년, 의존적 유형은 2학년, 3학년과 1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불안감과 진로 스트레스 때문에 직관적이고, 의존적 성향을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An[11]의 연구에서 1학년, 2학년이 4학년보다 점수가 높은 결과, Chen[18]의 연구에서 4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은 3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 3학년과 1학년, 2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n[11], Lee[14], Park[19]의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대학 또는 학과는 진로선택과 진로준비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11]의 연구에서 계열에 따른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 대한 결과, 학과만족도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연대는 학과만족도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진로의사결정에서는 의존적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Lee[17]의 연구에서 학과만족(교육만족)은 공학계열이 사회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보다 높았으며, 관계만족에서는 공학계열이 사회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 보다 높았다, 일반만족에서는 의학계열, 예체능계열이 자연계열 보다 높았다. 이는 목적을 갖고 진로를 선택한 계열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계열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보건계열로 국한되어 있어서 이들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성적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에 대한 결과, 성적 높은 대학생이 성적이 중 또는 하위 대학생 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하며, 진로준비행동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과만족도의 적성학습은 진로학습, 대인관계,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 진로준비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Jeong[7]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An[11]의 연구에서 적성학습은 진로직업, 대인관계, 합리적 유형, 진로준비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과 선택의 이유가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학과선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의 정도, 취업률, 사회적 인지도 등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학과만족의 진로직업은 대인관계,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 진로준비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An[11]의 연구에서 진로직업은 대인관계, 진로준비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과만족도를 고려한 교육과정과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학과만족도의 대인관계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 진로준비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An[11]의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합리적 유형, 진로준비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착실하게 취업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학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진로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직관적 유형은 의존적 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의존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

관을 검정한 결과, 1.18점으로 2근처에 있어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공차한계 (Tolerance)와 VIF 값을 이용하여 공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과만족도의 적성학습, 진로학습, 대인관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352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적성학습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 진로직업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19]의 연구에서 학과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An[11]의 연구에서 적성학습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 연구결과와의 공통점은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생의 적성과 전공이 일치 한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도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542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합리적 유형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의존적 유형, 직관적 유형은 순차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11]의 연구에서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의존적 유형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 등 [12]의 연구에서 합리적 유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14]의 연구에서 합리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유형 중 합리적 유형이 의존적 유형 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결과와의 공통점은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이 B와 G광역시의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표집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전체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 는 제약이 따른다.

#### 4. 결론

일반적 특성에서 학과만족도,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과만족도의 적성학습, 진로학습, 대인관계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합리적 유형, 진로준비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직관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은 적성학습이었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진로직업이었다.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보였고, 의존적 유형, 직관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과만족도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돕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wangju Health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3

#### REFERENCES

- [1] D. E. Super, The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 Row, 1987.
- [2] Eun-Joo Ko, The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type of career decision making and



- career matur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2011.
- [3] Bong-Hwan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4] K. H. Kim, Counseling psychology. Seoul: Hakjisa, 1997.
- [5]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 [6] C. T. Logu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Ph. d, 2005.
- [7] Jin-Hee Jeong, Factors in fluencing career decision level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2012.
- [8] G. H. Beek, G. H. Yu,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group of security major college students.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29, pp. 115-137, 2011.
- [9] Hyuk-Jin Kwon, The relations among the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0.
- [10] V. A. Harren,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4, pp. 119-133, 1979.
- [11] Hyung-Jun An, The influence of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3.
- [12] J. U. Kim, M. H. Yun, S. S. Park, H. J. Seo, The influence of MBTI type and career decision type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2, No. 4, pp. 195-217, 2009.
- [13] Mi-Ju Kim,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1.
- [14] J. K. Lee, Influence of decision making styles on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ommunity recreation and spor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7, No. 1, pp. 13-26, 2009.
- [15] Hyang-Ja Koh, A study on the effect of carc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3.
- [16] Jung-Kyu Kim, A study on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major satisfaction and accomplishments of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1.
- [17] J. H. Lee, A study o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seling, Vol. 5, No. 1, pp. 45-60, 2009.
- [18] Kyoung-Ae Che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05.
- [19] Yoon-Ah Park,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of college students, their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1.

**박 대 성(Park, Daesung)**



- 2005년 8월 :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춘해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 관심분야 : 응급처치학, 보건학
- E-Mail : emtppds1@naver.com